東大新聞

發行人 李瑄根
編輯人 鄭允武
主幹 宋赫
編輯部長 金澤根

發行所
우편번호 100
서울市 中區 筆洞3街26
東國大學校內
東大新聞社
電話交換 ㉑8131~9
本社直通 ㉑8577

每週火曜日發行

今週一言

垢中之垢,
莫甚於痴.
學當斯惡,
比丘無垢.

이 세상의 많은 때 가운데 어리석음보다 진한 때는 없나니. 비구들이여, 공부하는 이들이여, 악을 떠나서 이 때를 없게 하라.

<法句經>

매주 水曜日 「環境淨化의 날」로

學徒護國團 大學別로 使用建物 分擔

써클은 校庭서 美化作業

學徒護國團에서는 매주 水曜日을 「校內環境淨化의날」로 制定하고 校內淨化運動을 벌이는 한편 각써클과 전교생의 積極的인 參與를 바라고 있다。護國團의 이번 「環境淨化의 날」 制定은 지난 12日 열린 護國團-써클장懇談會에서 論議된 교내환경정화작업, 교내 새마을운동의 날 制定등을 具體化하여 實踐에 옮긴 것으로, 各大學은 使用建物內部의 環境美化作業을 담당하고, 또한 각써클은 校內의 地域을 分擔하여 매주 수요일 오전8시30분부터 9시30분까지 環境淨化作業을 벌이기로 했다。

한편 學徒護國團에서는 各 써클담당지역을 오는31日 制定에 關聯하여 한도유곡단의 漁洞浩師團長은 「大學새마을運動의 일환으로 벌이는 이번 환경정화事業은우선 각 써클內에서, 展開, 점차 전교생이 참여하는學校的인 行事로 발전시키고 또한 이 行事에서 우수한 成績을 거둔 써클에게는포상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現在 各大學과써클이 담당하고 있는 환경정화지역이다。

◇大學別

▲佛敎大=G건물 1~3층 ▲農林大=G건물 4~6층 ▲文理大=교육학관 좌측 ▲師範大=敎育學館우측 ▲工科大=工學館▲經商大=석조관 우측 ▲法政大=석조관 좌측

◇써클別

▲農漁村硏究部=후문~학생회관 앞 계단 ▲PTP=이발소 진입로 앞 ▲EUP=학생회관~교육학관 ~제3공학관▲國友會=工學館앞 ▲USA=본관앞 ▲NSA=본관건물 정면▲실업會=본관 건물 후면▲동물보호협연구회=도서관 우측▲충탁협부, 산악부=석조관 정면및 후면▲韓武術=체육관및 교육학관 주변▲불교학생회, 釋林會, 佛敎會信徒會=正覺院 주변 및 코끼리상 주변▲스피치 연구회=과학관 주변▲백민사상연구회=東友塔 주변▲동우회=G건물앞▲KCC=우체국 주변▲고전낭송연구회=청운주변▲극회=학생회관內部▲영어연구회=성상주변 잔디A▲東國文學會=「B▲동그라미會=「C▲통계조사회=「D▲동악二友會=ROTC변소주변。

本校規程集 發刊

行政體制 확립에 一翼

東國大學校 規程集이 기획실(실장=閔內天山)에 의해 발간되었다。이 규정집은 본교 현재 校內의諸規定및 施行細則을 集大成한 것으로서 行政의 能率化를위한 體制의 確立을 기하는데 一翼을 담할것으로 보인다。

敎養學部 月曜講座

敎養學部 月曜講座가 지난 21일 李康寧(漢陽大敎授) 박사의 「학문의 길」이라 연제로 中講堂에서 열렸다。

經營大學院特講

高承濟博士講演

本校 經營대학원 環境特講이 지난 21일(月), 주변▲불교학생회, 釋林會, 佛敎會信徒會=正覺院 주변 및 코끼리상 주변▲스피치 연구회=과학관 주변▲불교학생회, 釋林會, 佛敎會信徒會=正覺院 주변▲빛나사상연구회=東友塔 주변▲동우회=G건물앞▲KCC=우체국 주변▲고전낭송연구회=청운주변▲극회=학생회관內部▲영어연구회=성상주변 잔디A▲東國文學會=「B▲동그라미會=「C▲통계조사회=「D▲동악二友會=ROTC변소주변。

바둑실開室

그간 休室되었던 바둑실이 오는28일 開室된다。

文敎部가 건전한 오락종목조성의 일환으로 開室하는 바둑실은 學生會館(舊編輯室)에 마련된다。

스피치硏究會

29日, 학술세미나

제1회 스피치硏究會(會長=고재산·敎外3) 學術세미나가 오는 29일 옥수상업에서 열린다。

護國團 文敎部주최, 스피치硏究會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바람직한 大學生活」이란 共同主題하에 「大學生活 및 書藝活動」「理想的 理性교제」등 個別主題로 교수및 학생들의 主題發表가 있게된다。演士는 아직 미정。

放送局要員募集

30日까지원서접수

本校 敎育放送局에서는제16기 放送要員을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제작부5명, 아나운서부 4명, 방송기자부 4명, 기술부4명등 17명이며, 원서접수는 31日부터 4월 21日까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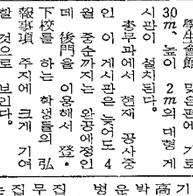
試驗科目은 國語, 英語, 一般常識(共通)에 各 部別 專作文, 음악상식(제작)음향상식(기술), 記事作成法(기자), 기술상식 (기술)

아데나워財團 奬學시험

車壽連 同門合格

자치제및 國際關係연구 및 장학사업(1970년부터外國人수상장학지원)을 주요 사업으로한다。

資格은 (1)大學院이수자(碩士學位상실) (2)文敎部認定大學院이수자 (3)兵役畢業및 면제자 4)博士過程 進學가능자 (5)만32세 미만자이며, 試驗科目은 (1)專攻論文 (2)國體討論 (3)口述考査 (獨語및英語會話)이다。



◇車壽連등문.

黃哲淳3回戰進出

「킹스컵」國際拳鬪

지난 20일부터 泰國의방콕에서 開幕되고 있는 第3回 「킹스컵」國際拳鬪選手權大會에 韓國代表로 출전중인 「밴텀」級의 黃哲淳(警行2)군은 첫날 태국의선수를 누르데이어 2次戰에서도 「우산」선수에게에뮈 判定勝을 거두어 결승 3回戰에진출을 계속하고 있다。

대형게시판설치

學生會館 맞은편에

學生會館 맞은편에 가로 30m, 높이 2m의 대형게시판이 설치된다。

총무처에서 현재 광산청인 이 게시판을 옥수도서관에 설치할 것을 계획하였다。

한편 이번 이 게시판은 완공에정인데 後門을 이용해서 登·下校하는 학생들의 편리를 위해 주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게시판도 다른 게시판과같이 소정의 사용신청 절차를 거친 써클이면 사용할 수 있게 개방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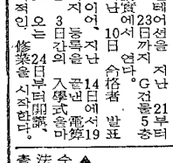
4學年卒業사진

4월16일까지촬영

77학년도 졸업앨범(위원장=魚德浩·林學4)에서는 졸업앨범 인물사진을 오는21일부터 4월16일까지 촬영하기로 했다。

이에 대비하여 4학년 각 과소대장들은 이기간내에학생과에서 촬영권을 배부받아 과원에게 교부하여야한다。

最終登錄 22,23日



◇朱宗桓 교수

經理課에서는금년도 1학기 등록을 마치지못한 학생들을위해 22·23兩日을 最終登錄기간으로정하고, 이기간내에 미등록자의 숙료를 바라고있다。

또한 이기간에도 학자들은자신청 가능하며, 구비서류도 종전 등록때와 차이가 없다。

女學生 환영회 盛況

家敎科 總長賞 차지

女學生 신입생환영회가 지난11일 오후3시부터 여학생 제대(제대장=김영미·사교3)주최로 학생회관 2층 王耶室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한영희는 金仁鎬교무처장과 카드順文學生監을 비롯한 敎職員과 신입생 참석한 가운데, 제1부는 鄭允武 한영희의 인사말로 시작하여, 2부는 鄭允武 교수의 「本校 학생처를 마친다음 鄭允武소장의 「本校 학생처를의 育成方案」과 朴昌雲교수(法政大·行博)의 「外國大學生의 特講」이 있을 豫定이다。

京都産業大 洞探部 來校

日本 京都産業大學 探險

本校 探險部(部長=橫澤昌浩·經濟學部3年) 일행 5명이 지난 18일 國內洞窟에 대한 예비탐사를 위해 본교 洞窟探險硏究會(會長=盧容根·林學4)를 방문했다。

오는 8월 본격적인 探査에 대비, 事前협정을 위해 來韓한 이들은 「日本洞窟國」등들은 全長이 이미 길고 內部가 아름답다고 해 꼭 와보고 싶었다」고 말하고, 8월탐사는 本校 洞窟探險硏究會와 합계 每日合同探險을 벌인것을 제의, 양교 모두 합의했다。

한편 이들은 18·19일간 本校洞探會의 탐방지구 견학을 끝마쳐보았다。

女學生 特講실시

墨書, 書藝등 希望者접수

새학기를 맞아 「꽃꽂이」를 비롯한 「女學生特講」科目과 時間表가 꽁고되어 女學處長, 교직원과 護國團 간부, 교양학부생 전원이참석하는 이날 행사는 제1부를 DBS인기프로인 「유S가요손」가 두대를 장식하며, 이어 제3부는 교양학부생의 개인별장기자랑, 特別 장기자랑등 신입생과 同門여연인의 출연등으로한 원회는 절정을 이루고 오후 5시에 막을 내리게된다。

한편 옥국단 문예부는 개인별장기자랑과 特別장기자랑에 출연할 희망자의 참가신청을 22일까지 접수했으며, 한영희 금일 폐회식을 끝으로 임장時 신입생전원에게 부담한 행운권을 추첨, 당첨자들에게 푸짐한 선물을 증정이 있을 예정이다。

도서차람중

31日까지再발급

圖書館은 77학년도 제2학기 도서차람을 발급키로 했다。

구비물은 동명사진 1매와 열람카드에서 대부하는차람증및 신청서 각 1매와 금학기등록필영수증등이다。

女學生 신입생환영회

墨書, 書藝등 希望者접수

새학기를 맞아 「꽃꽂이」를 비롯한 「女學生特講」科目과 時間表가 꽁고되어 女學處長, 교직원과 護國團 간부, 교양학부생 전원이참석하는 이날 행사는 제1부를 DBS인기프로인 「유S가요손」가 두대를 장식하며, 이어 제3부는 교양학부생의 개인별장기자랑, 特別 장기자랑등 신입생과 同門여연인의 출연등으로한 원회는 절정을 이루고 오후 5시에 막을 내리게된다。

한편 옥국단 문예부는 개인별장기자랑과 특별장기자랑에 출연할 희망자의 참가신청을 22일까지 접수했으며, 한영희 금일 폐회식을 끝으로 임장時 신입생전원에게 부담한 행운권을 추첨, 당첨자들에게 푸짐한 선물을 증정이 있을 예정이다。

24日, 新入生 歡迎會

公開放送, 長技자랑등 다채

77학년도 新入生 환영회가 오는 24일 12시부터 中講堂에서 막을 올린다。

학도한국단 총무부와 문예부가 주최하는 이환영회는 개회식에 이어 제1, 2, 3部로 나누어 공개방송, 장기자랑등 다채롭게펼쳐질 예정인데, 이에 따라 교양학부생들은 이날 오전 강의만 하게된다。

學處長, 교직원과 護國團 간부, 교양학부생 전원이참석하는 이날 행사는 제1부를 DBS인기프로인 「유S가요손」가 두대를 장식하며, 이어 제3부는 교양학부생의 개인별장기자랑, 特別 장기자랑등 신입생과 同門여연인의 출연등으로한 원회는 절정을 이루고 오후 5시에 막을 내리게된다。

한편 옥국단 문예부는 개인별장기자랑과 특별장기자랑에 출연할 희망자의 참가신청을 22일까지 접수했으며, 한영희 금일 폐회식을 끝으로 임장時 신입생전원에게 부담한 행운권을 추첨, 당첨자들에게 푸짐한 선물을 증정이 있을 예정이다。

休講, 3日內로 補講

=18日, 全體 敎學課長 會議=

學生指導敎授 體制 강화

學徒指導敎授 體制가 확립되고 學生指導敎授 지난 二學期 相談實績 減少

進路相談등이 首位

相談者현저히 減少

學生指導硏 지난 二學期 相談實績 발표

학생지도연구소(所長=鄭允武學生처장)에서는 76학년도 제2학기 상담실적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총 1백5건의 相談內容 중에서 進路指導(轉科·留學등)가 45건(43%)으로 제일많고 經濟問題가29건(28%), 적응상담(이성·종교문제)이 16건, 학사·병사문제가 14건으로 나타나 지난해에비해 전반적으로 줄어 들었다。

76년 1학기의 경우 총 2백21건중 경제문제가 1백55건(77%)이고, 전과·유학등 진로문제가 24%였던 것에 비해 볼때, 우선 총 상담건수가 급격하게 감소한 것은 기간의 차이도 있겠지만 指導敎授制가확립된데따라 나타난 상대적인 감소현상으로 풀이된다。

또한 進路相談은 轉科問題가 대부분인데 이는 적성과 專攻, 전공분야와 現 職社會와의 연결문제를 잘 나타내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대해 이영자상임카운슬러는 「입학초의 적성·흥미검사를 철저히 받아 정확한 자기평가로써 理想과 現實間의 괴리를 좁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經濟問題의 상담건수가 격감한 것은 장학제 넓어진 아르바이트요청에 영향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학교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써클활동부분은 1件으로 지난학기와 비슷한수준인데 이는 지난해 11월 談會와 지도교수중심의 분담제를 통해 학교생활이나 校友관계에 그다지 곤란을 받지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單大別 相談내용을 보면 1學期의 經商大에서 文理大가 首位이며 學年別로는 1·4학년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써클指導敎授 회의

25日, 育成方案등 論議

學生指導硏究所(所長=鄭允武學生處長) 協議會는 오는 25日(金) 오후3시 학생처 2층 王耶室에서 열린다。

협의회는 金仁鎬교무처장 카드順文學生監을 비롯한 敎職員 신입생 참석한 가운데, 제1부 鄭允武 한영희의 인사말로 시작하여, 2부는 鄭允武 교수의 「本校 학생처를 마친다음 鄭允武소장의 「本校 학생처를의 育成方案」과 朴昌雲교수(法政大·行博)의 「外國大學生의 特講」이 있을 豫定이다。

또한 이날 학생지도연구소는 오후2시부터 교직원 및 護國團 간부들과 「써클指導敎授協議會」를 열어 「써클指導敎授 및 護國團 운영방안등」을 논의한다。

京都産業大 探險硏究會

來校

本校 探險硏究會(會長=盧容根·林學4)는 지난 18일 來校한 京都産業大學 探險部(部長=橫澤昌浩·經濟學部3年) 일행 5명이 지난 18일 國內洞窟에 대한 예비탐사를 위해 본교 洞窟探險硏究會(會長=盧容根·林學4)를 방문했다。

오는 8월 본격적인 探査에 대비, 事前협정을 위해 來韓한 이들은 「日本洞窟國」등들은 全長이 이미 길고 內部가 아름답다고 해 꼭 와보고 싶었다」고 말하고, 8월탐사는 本校 洞窟探險硏究會와 합계 每日合同探險을 벌인것을 제의, 양교 모두 합의했다。

한편 이들은 18·19일간 本校洞探會의 탐방지구 견학을 끝마쳐보았다。

23日, 農林大세미나

「地域社會開發計劃」主題

農林大學(學長=權寧大교수)에서는 「農地政策의 기준과 方向」이란 演題의 세미나가 오는 23일(水) 오후 3시부터 한편의 이날오후 農林大에서는 누 敎授의 강연이 끝난 뒤 농림大學生과 희망학생을 중심으로 두강좌에대한 종합세미나를 열 예정이다。

◇朱宗桓 교수

館 교수회의실에서 개최된다。

現在 UN산하기구의 하나인해외농업경제연구소장」이 오는 23日까지 3日간의 일정으로 있으며 고려大 농대 재정경제부담당차 內轉한 큰 헨博士의 강연에 이어, 木曜 朱宗桓敎授(農林大·農經)의 「農地政策의 기준과 方向」이란 演題의 세미나가 오는 23일(水) 오후 3시부터 한편의 이날오후 農林大에서는 누 敎授의 강연이 끝난 뒤 농림大學生과 희망학생을 중심으로 두강좌에대한 종합세미나를 열 예정이다。

電算院入學式

24日부터開講

본교 電子計算院(院長=錢昌源)에서는 入學式및오리엔테이션을 지난 23日까지 3日간 G건물5층 特講實에서 연다。

지난 10日 合格者 발표에 이어, 지난 14日에서 19日까지 3日간의 등록을 끝낸 電算院은 3日간의 入學式및오리엔테이션을 24日부터開講, 本格的인 修業을 시작한다。

法政大 論文募集

10日까지 敎務課에

本校 法政大(學長=崔燒煥博士)에서는 敎學風·道成의 일환으로 오는 6월 22일 개최되는 「社會科學分野 學術發表會」의 主題論文을 모집하고 있다。

主題는 社會科學分野로國家와 民族發展에 공헌할 수 있는 論文으로 오는 6월 10일까지 法政大 敎學課로 제출하면 된다。入賞者에게는 「學術發表會」에 참가하는 혜택을 준다。

敎授動靜

一潮閣 1977年度 綜合圖書目錄案內

圖書出版 一潮閣
서울特別市 鍾路區 公平洞 9 番
電話 ㉑ 5430-1·㉑ 3545 番
對外 ㉑ 511931 番
光化門 私書函 279 號

여기에 실려 있는 圖書는 全國 有名書店에서 언제나 손쉽게 구입하실 수 있읍니다.

總販 靑丘書林 TEL.㉑8111-2番(鍾路1街此橋洞入口)

韓國上古史의 爭點 / 韓國史의 再發見 / 新羅政治社會史硏究 / 高麗政治制度史硏究 / 朝鮮後期農業史硏究 / 韓國近代農業史硏究 / 改訂 韓國開化史硏究 / 開化期 韓國 / 獨立協會硏究 / 東亞文化의 比較史的 硏究 / 東亞細亞史硏究 / 開港期의 商業硏究 / 韓國史資料選集(I~V) / 歷史學會 / 實學硏究入門 / 改正版 韓國史新論 / 國史新講 / 韓國現代史硏究 / 開化期의 韓美關係 / 世界史大觀(上) / 世界文化史 / 原典 西洋思想選集 / 世界文化史의 基本知識 / 李李朝晩年 / 韓國史의 基本知識 / 韓國의 獨立運動 / 韓國現代史硏究 / 東亞史의 傳統 / 中國近代史硏究 / 中國最近世史 / 獨逸近代史硏究 / 隨筆 / 朝鮮 紀行 / 韓國船濟州島難破記 / 韓國의 獨立運動 / 韓國現代史硏究 / 韓國史論文選集(I~V) / 歷史學會 / 刑法學(總論講義) / 刑法學(各論上·下) / 歷史學會 / 比較離婚法 / 全訂 行刑學 / 李基白 / 判例不法行爲法 / 全訂國際法新講 / 國際法 / 戰爭과 國際法 / 全海宗 / 閔錫泓 / 新稿新國際私法 / 李普珩 / 呈마法原論 / 高柄翊 / 新稿親族相續法 / 閔斗基 / 新稿債權法(總·各論) / 金俊燁 / 新物權法(上·下) / 行政節次法論 / 金伊烈 / 國際强行規範論 / 李丙燾 / 外資國有化論 / 李光麟 / 新稿政治學原論 / 李海南 / 政治思想史 / 李光麟 / 東西政治思想史 / 李炳柱外 / 近代韓國政治思想史 / 改訂韓國政治論 / 韓國政治學 / 韓國政治動態論 / 孫世一 / 立法過程論 / 金乙漢 / 朝鮮王朝行政史 / 李鍾學 / 行政學 / 現代官僚組織論 / 黃圭萬 / 韓國女性運動史 / 韓國과 美·日關係論 / 選擧制度論 / 美國의 對韓政策 / 아프리카政治論 / 改訂毛澤東思想 / 增補版國語學概論 / 國語學會 / 國語學資料選集(I~V) / 國語表記法辭典 / 國語音韻體系의 硏究 / 國語音韻論 / 國語 / 韓國民俗과 文學硏究 / 韓國神話와 巫俗硏究 / 韓國文學硏究 / 國語學 論文集 / 國語 硏究 / 國語 文法論 / 國語 史概要 / 國語 文法論 / 國語 敎育論 / 國語 學 / 國語 學史 / 新國語 / 新稿 東學入門 / 戰爭 論 / 李鍾 / 金九 / 洪乙漢 / 李鍾學 / 黃圭萬 / 梁柱東 / 金亨奎 / 現代軍事制度論 / 後進國政治論 / 美國의 對韓政策 / 改訂韓國政治論 / 韓國政治學 / 韓國政治動態論 / 孫世一 / 立法過程論 / 朝鮮王朝行政史 / 行政學 / 現代官僚組織論 / 韓國女性運動史 / 韓國과 美·日關係論 / 選擧制度

勉學風土와 敎授의 役割

—勉學雰圍氣조성캠페인과 관련하여

社·說

講義가 시작된 지 이미 3週에 접어들었다. 지난 겨울의 예년에 없던 강추위도 이제는 지나갔고 花信의 봄철이 문턱에 들어섰다. 우리나라의 네 계절중에서 가장 공부하기 좋은 철은 역시 두말할 것도 없이 봄과 가을이다. 지금은 바로 이 공부하기 좋은 계절이 온 것이다. 우리 인생을 일장춘몽이라 하거니와 덧구나 청년시절을 번개와 같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다. 그러나 읽고 쓰고 배우고 생각하여 학문을 익히는 데는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 回的인 젊은 시절, 특히 대학시절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할것인가.

독일의 철학자 피히테는 그의 「독일국민에게 고함」에서 『모든 교육은 확고부동한 存在, 즉 존재의 이외에는 있을 수 없는 〈존재〉를 형성하도록 노력하는 데 있다』고 하였다. 일찌기 그리이스인들도 世界와 인간의 근본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존재〉를 문제로 삼았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고 우리도 반드시 알지 않으면 안될 근본문제이다. 만일 나의 존재가 불가능하게 된다면 나는 무엇을 했을 수 있을 것인가.

『萬人에 대한 萬人의 투쟁』이라는 말이 바람직한 말은 아니라 하더라도 인간사회가 경제사회임은 면할 길이 없는 한, 우리는 경쟁에서 퇴지거나 패자가 되면 이 사회에서 소외를 당하게 되고 마침내 존재가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경쟁과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백종과 결과의 기반밑을 다져나가야 성립되고 성립된 나타내지않는 자기가 말았던 승부의 政事를 새로운 승부에게 인계하였는데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물으니 孔子가 말씀하되 『忠이라고 할 수 있나이까』, 孔子가 대답하되 『알지 못하노라. 어찌 「仁」이라 할 수 있단 말인가』(論語 第五卷 公冶) 라고 대답하고 있음을 보아 「忠」이 「仁」의 쓰임의 한 德目임은 아니요 「仁」의 의의 「忠」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 가. 孔子의 제자인 樊遲가 「仁」에 대하여 물을 때 孔子는 『사랑을 사랑하라』고 대답하였고, 孝子의 시 『仁이라는것은 사랑을 사랑하는것이요, 또 仁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말하고 儒敎倫理의 道德의 근본개념이었다. 이와 같은 原始儒敎의 仁은 모든 儒敎倫理의 統治理念과 관계해서 忠·孝·烈 始儒敎에서 忠은 어떻게 이해되었는가를 먼저 살펴보아야한다.

II

儒敎의 基本經書인 四書三經중에서 四書를 중심으로 忠에 대한 언급을 살펴보면 孔子의 論語에서

宋錫球 ▲佛敎大 助敎授

▲師範大 敎授·哲博 金秉玉

忠孝와 오늘의 世代

I

儒敎의 근본사상은 孔子의 仁에서 출발한다. 孔子의 「仁」은 孟子에 와서 五倫思想으로 그倫理的 德目이 定立되고, 다시 秦漢時代의 董仲舒에 의하여 三綱五常說로 바뀌었다. 그후 五常이 五倫으로 韓愈에 의하여 三綱五倫이 近世의 儒敎倫理로 定式化되었다. 따라서 마치 三綱에 기초를 둔 忠·孝·烈이 마치 儒敎倫理의 본질인양 傳承·理解되고 있음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孔子의 「仁」의 근본원리와 그후 발전된 유교윤리의 본질을 심층 보면 사실 근세까지 확립되어 내려오는 忠·孝·烈의 儒敎德目이 유교사상의 전체가 아니고, 오히려 「仁」에 바탕을 두고 그것의 현실적 실천방법이 곧 忠·孝·烈이었음을 알수 있다.

그 한 例로서 孔子에게 물기를 『子文은 세번 벼슬하여 令尹이 되었으되 기쁜빛을드러내지 않았으며, 세번 벼슬에서 쫓겨났으나 성남빛을 나타내지않고 자기가 맡았던 令尹의 政事를 새로운 令尹에게 인계하였는데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물으니 孔子가 말씀하되 『忠이라고, 子長이 다시 물기를 『仁이라고도 할 수 있나이까』, 孔子가 대답하되 『알지 못하노라. 어찌 「仁」이라 할 수 있단 말인가』(論語 第五卷 公冶) 라고 대답하고 있음이 특징이다. 그것은 우리의 根本 마음인 仁을 어떻게 간직하고 실천할것인가 하는 方法으로 忠·恕와 忠信을 말하고있다. 이때 우리는 忠·恕·忠信의 의미를 다음 「仁」과 관련내지 않는것이 되었

「프로테스탄티즘의 倫理와 資本主義精神」에 나타난 M·웨버의 魅力

營利追求의 資本主義 진력 究明

K·맑스 唯物史觀에 진지한 對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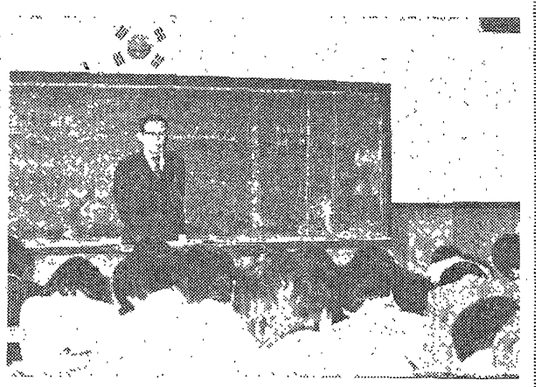
學問의 黨派化, 政治演壇化 경계

韓 相 範
<法博·法政大敎授>

웨버의 학문적 업적

M·웨버(M.Weber, 1864~1920)의 편모는 다양하다. 현대 사회과학을 그를 社會學者로서도 政治社會學, 法社會學, 宗敎社會學 등에 공헌한 학자로서, 재평가하고, 經濟史家로서는 마르크스(K.Marx, 1818~1883)의 唯物史觀에 대결한 학자로서 문제를 제기하였고 또 개념도상 〈近代化〉의 문제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 크며, 社會科學의 方法論에 있어서 그는 중요한 이정표(里程標)를 제시한 학자로서 그냥 지나칠수 없게 한다. 社會科學에 있어서 웨버는 우리에게 아직도 미해결의 문제에 관한 영감(靈感)을 주는 업적이고 또 지식의 寶庫가 되고 있다. 그의 전기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것은 아마도 그가 도이치 사회의 윤리적 전통과 잔재에 대결하며, 한편으로는 새로이 대두하는 全體主義的 도이치의 자유주의 학자라는 점에서도 그러한지 모른다. 또는 그가 資本主義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유럽 文明과 유럽的 人間의 存在구조를 해명하려고 시도한 점에서 그의 사회과학자로서 매력을 풍기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는 근대정신에서 인간의 〈內面的 品位〉, 良心의 문제에 진지하게 파고들은 학자로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 이러한 웨버에게서 우리는 다채로운 면모를 접하게 된다. 그는 학문적 생애의 출발점을 法學者로서 시작하였으나, 그의 연구분야와 업적은 經濟史, 社會學 등에서 찬란한 結實을 맺었다. 그 結實이 다채로운 풍요성 때문에 그에 접근하는 자는 각이한 전공자로 열을 짓고 얽고 그의 학문·사상의 전당에 들어간 자는 결코 빈 손으로 나오지는 않는다. 특히 웨버의 업적을 통해서 오늘의 문제를 의식하고 그의 문제 제기를 통해서 현대의 실용을 바라보게 되다는데 그의 매력이 있지만, 그가 사회과학의 인식론에 있어서 문제점을 명확히 한 것은 틀림없다.

그는 특히 學問의 黨派化, 大學자치의 政治연단화를 경계하였다. 그는 학생에게 한 강연인 〈職業으로서의 學問〉에서 이 문제를 풀이하고 다시 강연인 〈職業으로서의 政治〉에서 大學의 강단을 정치연단화하려는 左·右의 당파적인 추세에 대해서 학자로서의 知的 엄격과 정세를 외친것이다. 오늘날 共産主義는 공공연히 〈哲學의 黨派性〉을 주장하면서 학문을 既成知識을 그대로 가르치고 배우는 이론과 스콜라的 敎育이 아니라 先生이 가르치는 것을 이해와 비판을 통해 學生 자신의 지식을 향상, 확대시킬수 있도록 소크라테스的 敎育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점차 淨化되어가는 講義室 분위기 (A304講義室)

講義室 환경정화

大學의 敎育은 中·高等學校와는 달리 반드시 講義室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면학분위기조성이 얼마나 잘 되느냐 하는것은 講義室의 雰圍氣—講義室이 공부하기에 적합한가 하는 外的인 面과 그 속에서 講義를 하는 敎授와 청강하는 學生들의 태도가 어떠한가하는 內的인 面이 이루는—에 크게 좌우 된다.

사실상 大學의 講義室은 講義를 듣는 일 이외에는 거의 사용하는 일이 없고, 과목에따라 어려 講義室을 전전하기때문에 「우리 敎室」이라는 애착이 없게 마련이다.

따라서 담배꽁초와 휴지등을 마구 버리고 落書를 하는 등 무절제한 行動으로 오염되는경우도 있다. 무질서하게 늘어놓여진 책상들, 분필가루로 흰칠해진 판, 난잡하게 흩어진쓰레기 속에서 勉學이 이루어질 리는 만무하다.

더우기 늦가을부터 봄까지의 차가운 실내온도와 을산한 날의 을산한 講義室에서 이루어지는 講義는 결코 효과적일수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의 補完과 청소를 포함한 講義室의 환경정화는 시급한 問題인 것이다.

새학기 들어 學校 당국에서는 各講義室에 「지우개달이함」을 두어 공기가 혼탁해 지는 것을 막는다는 말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講義室의 基本施設이 완비된다면 우선 공부할 雰圍氣는 갖추어지는 셈이다.

知識의 實習場

그러나 정작 중요한것은 敎授·과제·學生이 三位一體가되어 知識전달, 활발한 질의응답으로 열띤 學究的雰圍氣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本性이 講義란 그 기원이나 本性이 對話(다이알로그) 이지 獨白(모노로그)이 아니다.

따라서 講義室은 敎授와 學生이 토론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활기찬 지식의 實習場이라면 안된다.

다시 말해서 大學의 敎育은 既成知識을 그대로 가르치고 배우는 이론과 스콜라的 敎育이 아니라 先生이 가르치는 것을 이해와 비판을 통해 學生 자신의 지식을 향상, 확대시킬수 있도록 소크라테스的 敎育이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淨化되는 講義室 雰圍氣

理由없는 休講 거의 없어 獨特한 敎授方法에 적응해야

때문에 學生 개개인의 자발적이고 자주적인 學習態度가요구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在大敎育은 너무도 뿌리가 깊은 것이어서 사실상 바람직한 소크라테스的 敎育이 이루어지기보다는 「大學은 學問의 自由가있는 곳이다」라는 말을 오도하는 경우가 많았다. 講義를 빼먹거나 불안정한 태도로 강의실의 분위기를 산만하게 조장하는 學生들이 적지않은 것이다.

큰 기대를 안고 가슴 부풀어 講義室로 들어가면 발걸음을 옮겼던 것 入學한 新入生들은 大學의 講義란것에 저으기 실망하는 경우도 있다. 무절제한 行動으로 오염되는경우도 있다. 무질서하게 늘어놓여진 책상들, 분필가루로 흰칠해진 판, 난잡하게 흩어진쓰레기 속에서 勉學이 이루어질 리는 만무하다.

더우기 늦가을부터 봄까지의 차가운 실내온도와 을산한 날의 을산한 講義室에서 이루어지는 講義는 결코 효과적일수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의 補完과 청소를 포함한 講義室의 환경정화는 시급한 問題인 것이다.

새학기 들어 學校 당국에서는 各講義室에 「지우개달이함」을 두어 공기가 혼탁해 지는 것을 막는다는 말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講義室의 基本施設이 완비된다면 우선 공부할 雰圍氣는 갖추어지는 셈이다.

知識의 實習場

그러나 정작 중요한것은 敎授·과제·學生이 三位一體가되어 知識전달, 활발한 질의응답으로 열띤 學究的雰圍氣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本性이 講義란 그 기원이나 本性이 對話(다이알로그) 이지 獨白(모노로그)이 아니다.

따라서 講義室은 敎授와 學生이 토론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활기찬 지식의 實習場이라면 안된다.

다시 말해서 大學의 敎育은 既成知識을 그대로 가르치고 배우는 이론과 스콜라的 敎育이 아니라 先生이 가르치는 것을 이해와 비판을 통해 學生 자신의 지식을 향상, 확대시킬수 있도록 소크라테스的 敎育이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점차 淨化되어가는 講義室 분위기 (A304講義室)

理由없는 休講 거의 없어 獨特한 敎授方法에 적응해야

때문에 學生 개개인의 자발적이고 자주적인 學習態度가요구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在大敎育은 너무도 뿌리가 깊은 것이어서 사실상 바람직한 소크라테스的 敎育이 이루어지기보다는 「大學은 學問의 自由가있는 곳이다」라는 말을 오도하는 경우가 많았다. 講義를 빼먹거나 불안정한 태도로 강의실의 분위기를 산만하게 조장하는 學生들이 적지않은 것이다.

큰 기대를 안고 가슴 부풀어 講義室로 들어가면 발걸음을 옮겼던 것 入學한 新入生들은 大學의 講義란것에 저으기 실망하는 경우도 있다. 무절제한 行動으로 오염되는경우도 있다. 무질서하게 늘어놓여진 책상들, 분필가루로 흰칠해진 판, 난잡하게 흩어진쓰레기 속에서 勉學이 이루어질 리는 만무하다.

더우기 늦가을부터 봄까지의 차가운 실내온도와 을산한 날의 을산한 講義室에서 이루어지는 講義는 결코 효과적일수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의 補完과 청소를 포함한 講義室의 환경정화는 시급한 問題인 것이다.

새학기 들어 學校 당국에서는 各講義室에 「지우개달이함」을 두어 공기가 혼탁해 지는 것을 막는다는 말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講義室의 基本施設이 완비된다면 우선 공부할 雰圍氣는 갖추어지는 셈이다.

知識의 實習場

그러나 정작 중요한것은 敎授·과제·學生이 三位一體가되어 知識전달, 활발한 질의응답으로 열띤 學究的雰圍氣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本性이 講義란 그 기원이나 本性이 對話(다이알로그) 이지 獨白(모노로그)이 아니다.

따라서 講義室은 敎授와 學生이 토론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활기찬 지식의 實習場이라면 안된다.

다시 말해서 大學의 敎育은 既成知識을 그대로 가르치고 배우는 이론과 스콜라的 敎育이 아니라 先生이 가르치는 것을 이해와 비판을 통해 學生 자신의 지식을 향상, 확대시킬수 있도록 소크라테스的 敎育이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勉學雰圍氣 조성 절대인

大學街가 분주하고 있다

<3>

淨化되는 講義室 雰圍氣

獨特한 敎授方法에 적응해야

理由없는 休講 거의 없어

어떤 경우에는 출석을 부르는 동안 시간은 10여분이 지나고, 산만해진 수업 분위기는 쉽사리 회복되지 않은 채 講義가 진행되는 事例가 많았던 것이다.

이렇듯 講義의 勉學 분위기가 적당한 方法으로이루어질 수는 없다.

理由없는 休講사태가 거의없어진 講義室의 분위기가서서히 활발해지고 있다.

어떤 학생은 말하기를 「이제는 입학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自覺한 學生들이 스스로 진지한 수강태도를 보여 바람직한 勉學의 분위기가 형성돼 가고 있는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수동적인 수강태도는 쉽사리 배제되고 있지 않다.

能動的인 知的努力이 敎授의 講義에 따라서 촉발되어야만한다. 講義의 음영이 수강자의머리 속에서 사색과 분석을 일으켜 「講義의 수강자의 머리의 평행선」이 그어져야 하는 것이다.

좀더 바람직하고 활발한 講義室의 분위기 속, 敎學분위기의 造成을 위한 수강자의 올바른 태도를 敎授들의 助言을 토대로 몇가지 열거해 본다.

첫째, 시작벨이 울리기 5분 전 청강에 필요한 것들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敎授를 한강 기다이주욕하여야 한다.

세째, 敎授의 지시에 따라공부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네째, 그것도 도서관 열람실까지 돌리는 경우도 있다.

正敎授의 博奇怪교수는 『일수업이면 녀펏번씩그 물을 자신의 설교으로 제작된 벌통이 신기하기 ○……』

난데없는 鐘聲이라… 환영회에 부대끼는 新人生

……○○

도 하겠지만 벌통의 打 책 『점난한 가시밭 속에 스님은 『梵鐘을 六道衆生 어떻게 피어난 꽃송이가 더 鍾을 치므로써 나타 아름답다』고 비유하면서 심해주었으면…

○…새로 단장된 미색 『신입생 여러분이야말로 나는 것』이라고 말하고 『결국 佛敎精神을 전하 이입으로 하는 우리 학 入試의 가시밭속에서 피어 커어를, 아늑한 조명의 玉 耶室에서 에넬에 비해 좀 격려, 신입생들의 잡책들을 영화는 에넬에 비해 좀 격려, 신입생들의 잡책들을 교 학생은 전교생 모두 어둔 女學生敎에도 불구 가 마음속으로 함시 鍾 하고 시중일관 화기애애 받았다.

○…요새 新入生들은 입학하면 기울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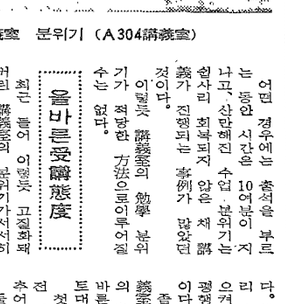
일단계, 장의실에서는 담배를 금해야 한다.

여덟째, 비공공적인 사려깊게 그리고 이해해 가면서 경청해야 한다.

아홉째, 강의시간에 특별한事由없이, 늦게 들어오거나 중간에 퇴장해서는 안된다.

열째, 강의시간에 명백한 自己確立이 서있고 이상과 같은 태도를 갖춘다면 수강자는 그 누구도 깨트릴수 없는 진지하고 열띤 것이 될 것이다.

<張玲美記者>



◇「農研」특유의 흥겨운 農樂公演.

農村배우는 학적없는 兄弟 「農樂 公演」「學農」發刊도

『우리는 가장 純粹한농촌을 알고 이해하고자하는 「호적없는 무제」들로 뭉쳐 있읍니다.』

農漁村硏究部 部長 장동호(農學·3)군의 굳은 말이다. 동료부원이 아니면 여간해서 접근하기 쉽지 않은 인상의 농어촌연구부—바로 이러이러하다는 「모르면 잔자코있으란」는 설득한 행동의 중고 말았다.

그만큼 20년간 쌓아온 업적과 전통이 있기에자부심이 대단하다. 1956년 4월 農林大內에서 「4—H硏究會」로發足, 1961 4월에 학생회소속 농어촌연구부(현재는 호국단 산하을부소속)로 개편 숙성하면서 눈부신 활동을 거듭하고 있다. 그동안 배출해 온 先輩數만 2백명이 넘는다.

農村을 떠남없이 관찰상이 그들의 삶을 위해 필요한가를 절실하며 농촌을배워나간다. 이정신을 바탕으로 연구를 거쳐간 선배들은 농촌지도자를비롯, 각계각층에서 모범을 보이고 있다.

근래에와서 「農村活動」은 이러한 진지한 農村硏究자세는 部室內에농촌사회의 경제, 문화, 과학, 전통적절차, 연구방법 등을 말해주고도 남는다.

「農民의 意識構造硏究」「農樂」은 실제로 農仕活動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농연」하면 농악을수없는 것이 「農樂」인데 古典을 얽고 농촌문화를이해하는 지름길이 바로농악이란다.

모둠한 농악북과 꽹가리, 장고, 소고, 그리고 「農樂天下之大本」이란 깃대 생활동을 이미 낡음 활기있는 이런 누구나 소고 정도는 칠 수 있다고.

「적절 농악놀을 일고한번 뛰어보십시오. 그 흥겨움이란 말로 이루 다 표현할 수가 없답니다」

지난해 70주년기념행사때 李瑄根總長이 주신농악북 일체와 악기는 수십자리의 대의원연의 성과를 말해주고도 남는다.

현재 이 서울이 안고 있는 가장큰 문제점의하나가 「어촌」에 관한 것인데, 이 방면은 미개척분야로 부원들의 부단한 노력과 끊임없는 탐구자세로 개척해 나가야할것이다.

지도자를 육성시키기위한 1년 2회이상의 수련대회를 비롯 硏究誌 「學農」발간이 주된 사업이며 많은 非農大生도 農村의 바른 知識을 위해 활약하고 있다.

지도교수는金熙坤(농학과), 李秉東(농경과) 金興培(농학과) 교수이며학생회관 3층에 서클룸을 두고있다.

<朝>

서클 순례 (2)

41 > 59

『41은 59보다 크다?』

물론 이 말은 수학적으로는 있을 수 없읍니다. 그러나 柳韓은 41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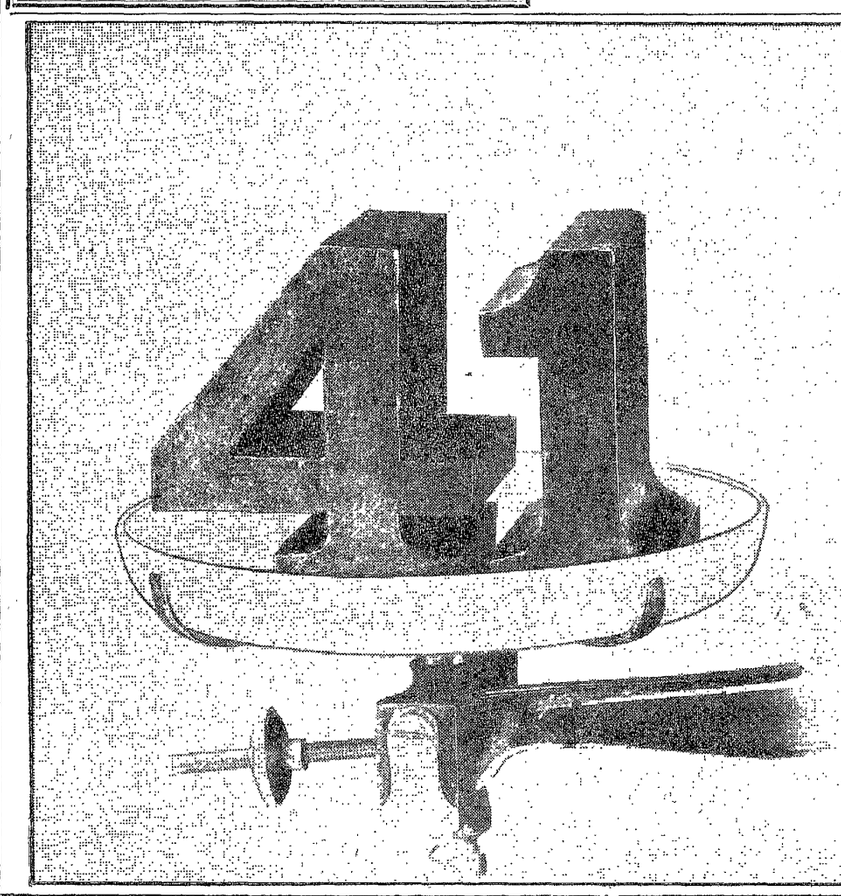
柳韓의 企業利潤중에서 41은 各種 公益団体를 통해서 社會에 되돌려지는 占有率이고, 59는 柳韓의 企業利潤중에서 一般 株主에게 배당되는 占有率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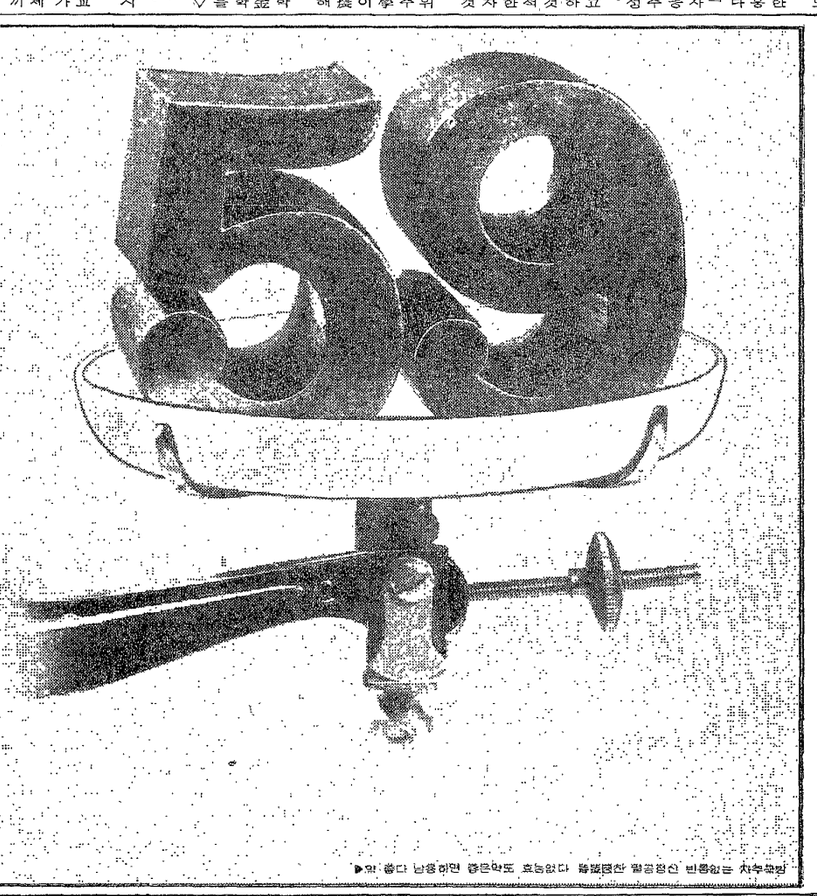
지금 柳韓이 社會로 되돌리는 이 41%의 몫은 자라나는 青少年을 위한 技術敎育에, 疾病으로 부터 人間의 健康을 지키는 医學敎育에, 能力은 있으나 學資金이 부족한 學生들의 奬學金에, 그리고 青少年의 社會敎育에 값지게 쓰여지고 있읍니다.

이렇듯 59의 몫이 一般株主에게 分配되는 것보다 41의 몫이 社會에 還元되어 맺어지는 結實은 41이 아닌 무한대(∞)라고 柳韓은 믿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柳韓은 보다 合理的이고 科學的인 経營으로 앞으로 41이 더욱 커져서 이 社會에 더욱 폭넓게 기여할 수 있도록 優秀医藥品 生產에 총력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株式會社 柳韓洋行





▶약: 좋다 남용하면 좋은약도 효능없다 특별한 필요없이 빈용하는 자수주의

나의 길

鄭 良 云

太初에 傳說이있었다。神話가 있었다。人間이었었다。그리고 人間의 運命이 결정되어졌다。

암흑, 암흑이였다。빛이라고는 한點도 없는 漆黑같은 暗黑이였다。그暗黑 속에는 길이있었다。멀고도 가까운 길이었다。외로운 길이었다。가파른 길이었다。울퉁불퉁한 자갈길이었다。沙漠위에 오아시스를 향해 난 모랫길이었다。어제 가다가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진채…

나는 어둠속의 그 길을 나는 걸었다。언젠가는 나를 인도해줄 빛이 나타나리라는 막연한 信念을 가진 채…

어느날 나는 그 길을 이어 버렸다。비록 그길이 한點의 太陽도 비치지 않는 암흑 속의 길이었을지라도 그길은 나의 전부였다。나는 그길을 잊어버렸다。나의 記憶 속에서…

그 길 옆에는 두려운 安逸, 寧逸이 있었다。人間을 동물로 만들어 버리는 그 저주스러운 寧逸이… 나는 언젠가는 다시 암흑 속의 그 길로 돌아가리라는 막연한 심정으로 그安逸無事의 敗北主義에 머물렀다。옷였다。노래했다。외쳤다。마치 이 세상 모든 것이 내것인것처럼。그리고 行動했다。平原을 질주하는 돈키호테처럼。正義와 眞理의 假裝服을 입고 無意味한 세월이 흐르자, 그 빛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나를 인도 할 그 빛이 그 瑞光이나는 그 빛이 점점 밝아지기를 고대하면서 암흑 속의 그 길을 계속 걸었다。때때로 좌절하고, 회의하고, 고민하고 또 確信하면서… 나의 조그만 바탕이 헛되지 않았는지 그 빛은 암흑 속의 그 길을 마침내 환히 비추어 주었다。내가 정어야 할 人生의 길을, 그 빛으로 인하여 나는 비로소 존재의 차원에서 벗어나 추구하는 인간이된 것이다。그 빛이 비추기 이전의 나의 生은 단지 존재 그 자체의 生이였다。極瑞的인 허무와 厭世가 존재의 전부였다。그러나 인간의 존재는 결코 그 존재자체가 목적일 수는없다。그것은 목적을 追求할 수는없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세상의 모든 것을 부정한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긍정하게된 것이다。아! 이제야…나는 비로소 存在의 참뜻(眞意)을 알게된 것이다。내가 이러한 것을 깨닫고 난 후 이제 시작되는 첫 번째생활이 바로 대학생활이다。

나는 이제 결코 虛榮과 排他 속에서 自慰만을 眞理로 삼는 傲慢한 청년이 아니다。남의 사상과 학문을 최대한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비판하고, 새로운 진리를 탐구하는 대학인이다。아! 이제나 나는 어리석은 사고의 產物에 흠뻑 취해보리라。그리고 모든 사람을 대사 밝히리라。더욱이여! 꿈이있고 사랑이 있고 우정이 있고, 존경이있고 또 겸허한 침묵, 사색이 속삭는 대학이여! 부디 나를 그 꼬옥안겨다오。

X양! Y군! 우리모두 봄날의 따뜻한 햇볕을 받으면, 약동하는 생명의 소리를, 우리의 생활을, 아름다운 우리의보금자리를 건설하자。

그러나 지금은 승리의깃발이 펄럭이나고 바람직한 대학생의 책임과 이상이그러진 것만인것이다。

창으로 길고 푸른근한 말이 흐르는 몇해였다。그동안 부자되 정신적, 물질적 발전에 보람하기 위해서라도 신택된 대학 4년을 알차게 보내야겠다。

사실 말이쉽지 커다란 천한다는것은 쉬운일이아닌듯이보인다。그속에서한 사람의 진실이 왜곡되고 우리에게는 한난 옷을 벗어버리고 보이지않는 현실에서 대학생이란 순수한이념과 젊음의과시는 우부 쓸모없는것으로 보여왔다。비록 주위가냉랭하고 알아들여지지않는다 해서 소신의 표현을 주저할수는없다。그리기엔지금까지의 수고가 너무도 아까운것이다。

나의 大學4年은 소스로의 비판의식에서 출발되어야겠다。그러나 아무런 비판의 기준도 없이 소스스로를 자학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고싶지는 않다。소스로를비판하고, 바람직하게 이끌수 있는 참가치의기준을 세우는시간이 되어야할것이다。

그밖의미에서 대학에서 얻어지는 일은 많은 것이다。그것은 最古의 韓國文學遺産까지를 지닌다。日帝暗黑期이래 民族的인 작자 이 표현화하면서 가장많은 研究의 대상이된 것은 조다 절부된다。그 대표적인 연구는 日人學者 小倉進平의 연구를 뛰어넘을 无雷 梁柱東박사의古歌研究」이다。이 力著는 학술을 통일적의 호응성만 아니라 문학의 精神史的 연구로서 큰 수확이 아닐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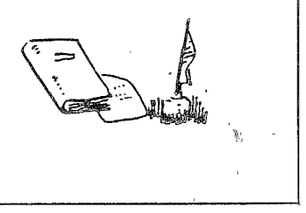
金박사는 문학평론가로서 20여년간 불교와 문학과의 관련성을 꾸준히 추구하여왔다。8년전에 내놓은 評論集 「三昧의言語」는 그성과의 하나이다。이번 「新羅佛敎文學硏究」는 본격적인 연구논문이거니와 이著述을 통하여 우리는 그의 불교문학관이 드러나고 있음을 볼수 있다。

「韓國佛敎文學硏究의 史觀을 확립하기 위하여 또한 韓國佛敎文學硏究의 한발을내딛기 위하여는 목적도있으나, 여기에 보다 크게 작용한 것은 신라향가의 新羅佛敎, 그자체에 대한 매력」때문이라는 著者의 진술은 본책이나읽고 모든사람을 인정해야하지만 아무리 갈려나가도 이리저리 갈려다닐수는없다。나의 의생활에있어서 대중을경계해야만 하겠다。2천년전에 수라는신생을 사랑한것도 그들대중이지만, 그들이 이들 대중을 인정하면서도 대중이라는 것이다。대중은 우매하기 때문이란 결론이다。

그러나 되는대로, 아무렇게나 하지않는다고해서 스스로를 고립이라는 울타리로 부자유속으로들 해볼 작정이다。

<二部大·會計學科>

新入生 新春隨想



자유의 門

鄭 玄 宗

이제 이 상아탑 안에 서 덤벼들어 물들지 않는 연꽃의 속성을 배우고 아득한 향기를 맡는 것은 전연 불가능하지는 않는다。 그 의미를 머리속에서 만의 독경에 그치지 않고 아득한 향기를 맡는 것이 아 좋을것 같다。거기다 발동과 나태 무절제등 이 흐름에 이제 막 못 이겨 이 나오는 나를 잃어버 성격이 되려고 억지로 행동되는 것들을 스스로 제거할수 있는 것도 불공적인 영역의 생활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神的領域으로 까지 침투 된것같다。

▲商品廣告에 名品의 우아한 선율과 아름다운 詩句가 등장한 것도 그한 例이다。한발짝에도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한다。점점 과격해지고 있다。社會는 철저한 分業化에따른 무관심」이란새로운病을 얻었다。 그 원인은 이른바 「전시작전」을 벌이고 있다。 「전시작전」은 「전시작전」의 「전시작전」 등 등 글씨

피사리君

이 윤 규

人口와 食糧및 人口敎育

<國會圖書館立法調査局·非賣品>

世界의 人口는 21세기초에는 70億을 突破할 것으로 推算되고 있다。한편 食糧의 生産은 需給이 逼迫하여, 人口와 食糧의 문제는 오늘날 國際的인 關心事로 되어있다。이미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日本, 印度등 몇몇 國家에서는 産兒制限 내지 家族計劃事業의 推進으로 人口抑制에 相當한 成果를 올리기는 하였으나, 단순한 臨床施療的인 方法으로는 더 이상의 進陟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專門家들은 보고 있다。

그것은 食糧增産에 대한 樂觀的인 전망, 大家族制度에의 집착 男兒選好의 價値觀, 男尊女卑的사고 회관습등 전통적인 생활양식이나 思考방식의 革罷없이는 出生率의 저하를 초래할수 없기때문이다。

이 資料의 제1편에서는 世界 20個國의 人口와 食糧에관한 現狀과 對策을 소개하였고, 제2편에서는 우리나와 비슷한 처지에있는 東南亞諸國의 人口敎育實態를 소개하였다。

蘇聯便覽 海外資料28輯

<國會圖書館海外資料局·非賣品>

이책의 머리말에서 편자는 이 자료편찬의 의도는 「우리나라에서 소련에 관한 단편적인 專門書나 論文들은 많이 있는데反하여 제반실정을 분야별로 종합 정리한 것이 거의 없다는데 있다」고설명하고 있다。

이 편람의 목차를 소개 하면 ①地誌 ②歷史 ③政治④外交 ⑤經濟 ⑥軍事 ⑦社會, 文化 ⑧國際共産主義運動 ⑨最近의 中·蘇관계등으로 엮었다。

이자료가 蘇聯현실을 파악하는 길잡이로서 활용되기를 바란다。

文化短信

朴鍾會會畫展

本校 法政大出身의 洋畵家 方剛朴鍾會畫伯이 (종로구 관훈동 ☎343-2) 에서 25日까지 열리고 있다。

香千岩展의 「전시작품은 「社千岩」 「語句」 등 등 그림씨

메아리

▲「公害」는 이제 언어생활의 공害로 養의 위용에 현대인의 意識을 흔들리기시작했다。 등장할 정도로 우리는 공해 범람시 이미한 정신적 정해 공害는 점점 심각하다。 대에 살고있다。공 해란 원래 公共生 神病으로 나타났다。 活과 大衆의 위생환경을 ▲이런 점에서 言語公害 뜻했지만 이 제 産業公害의 영역에서 벗어나 騷音公害, 言語公害, 심지어 深夜放送公害 아한 선율과 아름다운 詩句가 등장한 것도 그한 例이다。한발짝에도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한다。점점 과격해지고 있다。社會는 철저한 分業化에따른 무관심」이란새로운病을 얻었다。 그 원인은 이른바 「전시작전」을 벌이고 있다。 「전시작전」은 「전시작전」의 「전시작전」 등 등 글씨

公害범람

장 순수한 논배의 모습으로公害를 추방하는 곳이어야한다。

淨水淸를 開發하고 민족혼을 노래하여 國民정서에 빛을 던지는공-작가 자기정분야에서 자기정분야에서 神的領域으로 까지 침투 된것같다。

▲商品廣告에 名品의 우아한 선율과 아름다운 詩句가 등장한 것도 그한 例이다。한발짝에도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한다。점점 과격해지고 있다。社會는 철저한 分業化에따른 무관심」이란새로운病을 얻었다。 그 원인은 이른바 「전시작전」을 벌이고 있다。 「전시작전」은 「전시작전」의 「전시작전」 등 등 글씨

詩四十四

김 강 태

겨울비 簡口, 개인 색면 소리와 색의와 꿈을 끌라 海水에 달그는 날개。

숨어서 외로워 그래서 차라리 深海과 仲變의 醉하면, 하고 海域을 거닐었다。

서로 알면서 모르는 척 아수를 나누는 바다의 시름, 외진 길을로 발등을 부여끼며 다가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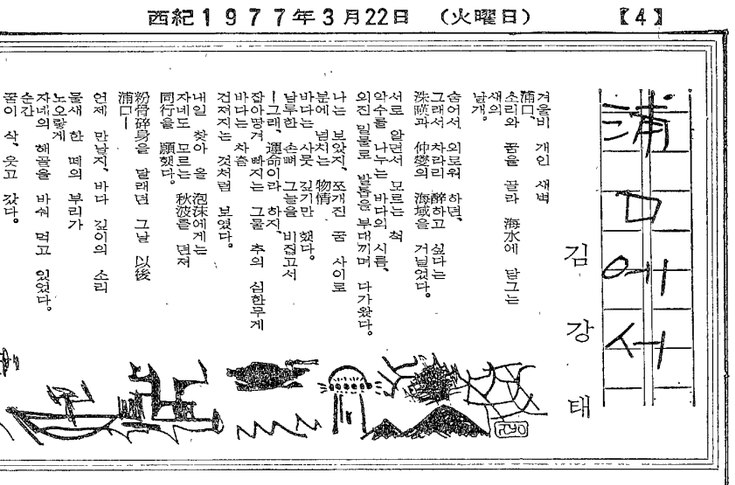
나는 보았지, 쪼개진 물 사이로 분에 넘치는 物情 나는 보았지, 바다는 넘치는 사로 깊기만 날투한 손뼈 그늘을 비껍고서 바다는 그 물 추의 심한무게 잡아망겨 運命이라 하지! 건져지는 차츰 것처럼 보였다。

내일 찾아 올 泡沫에게는 자네도 모르는 秋波를 던져 同行을 願했다。

紛骨碎身을 날래면 그날 以後 酒口—

언제 만날지, 바다 깊이의 소리 물새 한 떼의 부리가 자네의 헤골을 바쉬 먹고 있었다。 순간 꿈이 삭, 웃고 갔다。

<女理大·國文科>



벽이

金 熙 哲

철날 아침에 나는 동대문 고속버스터미날에서 아홉시에 출발하는 전주행 고속버스에 몸을 실었다。버스가 슬슬 뭐정을 칠때 웬 머풀리를 뒤집어쓴 여자가 급히뛰어올랐다。머풀러는 어김없이 빈어있던 내 옆자리에 앉았다。

『저……미안하지만 자리 좀 바꿔 앉을까요?』

유리창에 낀 성에를 입김으로 녹이고 있던 내게 머풀러가 뭣등수에 입김을 불어넣었다。자리를 바꿔 앉았다。얼굴보다 머풀러가 예쁜 여자였다。

여자는 창가에 앉자마자 머리부터 입빨을 소리나게 맞부딪치곤 머풀러를 벗어 의자에 걸었다。그리고 내가 입김으로 녹인 창을 장갑 낀 손으로 쓱쓱 문지르더니 내 쪽을 돌아보고 벨쭉웃었다。

『아이 추워, 이 차엔 히터도 없나?』

여자는 마침 물컵을 들고 우리 곁을 지나던 안내양을 의식하고투정을 부렸다。안내양의 매운 날씨처럼 싸늘한 시선이 날 지나쳐서 정확히 여자의 눈길과 마주쳤다。

『안내양 이쁘다 많은 옛날이지。 멋대가리라곤 하나도없는것들이…』

여자는 안내양이 제자리에 앉은 후에야 나직이 뇌까리곤 곧 핸드백에서 성인만화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나를 포함한 모든 승객이 그때 여자만은 핸드백만 들고 탔다。 제나름의 신물구리미를 안고 가는데 여자만은 핸드백만 들고 탔다。 여차보다도 새옷 티가 나지 않았다。

『잘 먹었습니다。 힘때 철날 먹나 먹었습니다。 고향에가요?』

『아뇨, 기사나트렌데 고향에가요?』

『시력이 저렇게 좋으세요?』

『아니는 저의기 실망한 표정으로 그리고 내심 실망하면서 되물었다。

『그럼 제가 쳐녀로 보이셨어요? 해도 밥도 못하는 신세가 팩 버렸죠。』

『갈은 고향 사람인가요?』

『아네요。 난 서울 토박이라구요。 무식한 애 아빠가 우리집에서 하숙을 하다 그렇게 됐지, 지금 사장。 나는 모든걸 점잔한뒤 할일이 없어 옆에앉은 여자의 점선는 소리를 세었다。

『박 벽 박 박…』

『서른 하나 서른 두울…』

『박 벽 박 푸 푸 푸』

나는 바른점선는 소리가 옆을 보니 소리로 만화 책으로 얼굴을 가리고 자는 만화 책으로 얼굴을 가리고 푸푸푸 웃고 있었다。만화의 익살 끈이 찌처나와 배꼽을 건드린 모양이다。

차가 휴게소에 멈췄다。 바깥 날씨가 춥기때문에 많은 사람은 거의 자리를 뜨지 않는 사람은 거의 자리를 뜨지 않았다。어느새 차안은 훈훈해졌다。나는 코트를 날씨에는 아랑곳 없이 벗었다。 밖깥 날씨에는 아랑곳 없이 벗었다。 밥맨이기가 한가롭게 날일었다。

차가 전주에 닿았다。 보고 여자는 선물보라미가 한은걸 흔찟놀라더니 고맙게도 내 코트를 받아들였다。차에서 내리자 내게 달바람이 훈훈해졌다。 우리에게는 달바람이 훈훈해졌다。 우리는 근처 다방으로 얼른 들었다。 여자는 차 안에서 처럼 미풀러를 깔고 아까와 달리 정숙하게 앉았다。

『사실 시력에 잘 일이 적정이에요。아예 오늘 전주 구경이나 하고 네일 일찍 갈까하는 생각도있지만…』 슬이 꽉 막혀왔다。 담배연기 난 슬이 꽉 막혀왔다。 담배연기 영영이 자국이 나있는 느껴졌다。 나는 화끈 장실에 앉아 담배를 빨고있던 여자는 황급히지워버렸다。 자를 생각하다 담배를 여 쭤 그렇고 그럼 여자, 그렇고 그 여자는 들아와 나는 자리에 앉으면서 살면서 성냥을 내는에 여자는 목적도있다。그리고 핸드백에서 휘너저와우 다。 그리고 핸드백에서 날 기다리라는 말만 남기고 다방을 나갔다。 나는 사는 것이 막혔다。 남 오늘 또 한번 마시는 것은 술도 마시는 것은 이 설날이다。집에서 날 기다리는 생각을 억지로 억지로 하면서 앉았고 머리모양도 미장원엔 들리지 않은 것이었다。 차는 바람서럴 원형거리며 경쾌하게 달렸다。나는 눈을 감고 아버님께드리 한산도 열갑, 어머니 것 T샤쓰, 이웃 어른 도리, 여동생 것 T샤쓰, 이웃 어른 도리, 한산도 열갑